

통신언어의 모음변이와 음성학적 유사성

Vowel Variation in PC Communication Language and Phonetic Similarity

지 윤 주¹⁾ · 김 일 규²⁾
Ji, Yunjoo · Kim, Ilky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eper understanding of how it is possible for people to understand PC communication language they have never seen or heard before without any problem.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we focused on the vowel variation through which new variants are created (for PC communication), and hypothesized that there is a phonetic constraint which requires the vowel of the variant to be phonetically similar (to the maximum) to the vowel of the original word. Through the corpus analysis of the dictionary of PC communication language, we show that our hypothesis is justified by the fact that most of the variants we collected from the dictionary, that is, 90% of them, conformed to the phonetic constraint we postulated.

Keywords: PC communication language, vowel variation, phonetic similarity, Korean

1. 서론

통신언어는 컴퓨터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자언어로서 편의성, 유희성, 그리고 감성표현 등의 이유로 90년대 이후 주로 10-20대의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통신언어는 일상 언어의 규범을 파괴하고 한국어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때문에, 통신언어와 관련된 많은 연구는 국어의 파괴 및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윤옥경 2000). 반면, 통신언어가 일반 단어의 변이 형태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변이형에 대한 언어학적 (특히 음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다(박철주 2006, 이주희 2010, 전병용 2002).

통신언어의 변이형과 관련된 언어학적 연구 주제는 매우 다

양하겠지만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현상은 통신언어의 수신자가 단어의 원래 형태가 아닌 변이형을 새로 접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아무 문제없이 원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위해 통신언어를 만드는 방식 중 가장 생산적인 방식인 모음변이(vowel variation)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 통신언어의 모음변이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논할 것이다. 3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음변이에 음성학적 제약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통신언어 사전에 기반한 코퍼스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코퍼스 분석 결과의 의의에 대해 논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 논문을 마무리 하겠다.

1) 한국의국어대학교, jshelper2013yj@gmail.com
2) 강원대학교, 8ilkyu@gmail.com, 교신저자

접수일자: 2015년 1월 31일
수정일자: 2015년 3월 17일
게재결정: 2015년 3월 17일

논문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여러 가지 비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기존 연구

박철주(2006)는 통신언어에서 ‘ㄱ(ㄱ)→ㄱ(ㄱ)’, ‘ㄱ(ㄱ)→ㄱ(ㄱ)’, ‘ㄱ(ㄱ)→ㄱ(ㄱ)’, ‘ㄱ(ㄱ)→ㄱ(ㄱ)’의 변화가 가장 활발하며 주로 후설모음은 후설모음로, 전설모음은 전설모음로 바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빈도분석을 하지 않고 몇 개의 눈에 띄는 사

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음변이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모음변이의 방향성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전병용(2002)에서는 모음변이를 이화현상³⁾의 일종으로 설명한다. 즉, 원순모음이 비원순모음이 되는 비원순모음화 현상, 이중모음이 타수를 줄이기 위하여 단모음화되는 현상, 그 밖의 다양한 모음 교체 현상을 음운 교체⁴⁾의 하위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역시 몇 가지 특정 변이 현상만을 다루고 있어 통신언어의 모음변이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왜 그러한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가 힘들다. 또한, 다양한 모음 교체를 음운 교체 현상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나 통신언어의 모음변이는 음운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 교체 현상과 큰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⁵⁾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모음의 변이현상이 동화현상이나 이화현상이나 중요한 이슈였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 즉, 어떻게 변이형을 처음 접하고도 원래 단어의 의미를 아무 문제없이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통신언어의 수신자가 처음 접하는 변이형을 제대로,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대화의 문맥, 음성/음운론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음변이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학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3. 통신언어의 모음변이는 음성학적 제약을 받는가?

3.1. 가설

우선 통신언어의 모음변이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변이의 기준으로 삼게 될 한국어의 모음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는 신지영(2012)의 한국어 단모음 체계를 받아들여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 단모음은 7개이며 각각의 모음은 혀의 고저, 전후 위치, 원평순의 기준에 의하여 <표 1>처럼 분류된다.⁶⁾

- 3) 서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하나를 다른 소리로 바꾸는 현상으로 동화의 반대이다. 일상 언어의 음운 현상에서는 동화가 이화보다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이함, 신선함, 새로움을 추구하는 대화방 언어에서 이화가 많이 일어난다.
- 4) 같은 어근이나 어미에 속하는 형태소가 그러한 형태소의 기능 및 음성적인 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서로 다른 일정한 음운으로 실현되는 현상
- 5) 한편, 이주희(2010)는 동화현상과 이화현상을 비교하며 전병용(2002)에서 나온 음운론적 현상으로 제시한 윙아웃트가 실상 뒤에 나오는 음절의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윙아웃트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 6) 윙필재(2007)에서도 한국어 단모음 체계는 10단 모음 체계에서 8모음으로, 특히 젊은 세대는 7모음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하며 ‘기’와 ‘계’의 구분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로 젊은 세대에 의해 사용되는 통신언어의

표 1.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신지영 2012)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ㅡ	ㅓ
중모음	ㅕ/ㅖ	ㅜ	ㅛ
저모음		ㅗ	

위의 단모음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통신언어의 모음변이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성학적 제약을 받는다는 가설을 세웠다. 여기서 음성학적 제약이란 아래 (1)과 같다.

- (1) 음성학적 제약 : 통신언어의 모음변이형은 원래의 모음과 음성학적으로 (최대) 유사한 모음이다.

모음변이가 이러한 음성학적 제약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음성학적 유사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기준으로 혀의 위치의 근접도를 설정하였다. 즉, 혀의 위치가 가까운 모음일수록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모음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모음은 저모음보다는 중모음과 음성학적으로 더욱 유사하고, 전설모음은 후설모음보다 중설모음과 더욱 유사하다.

우리는 이렇게 설정한 음성학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편의상 고-저, 전-후등의 음운적 자질을 사용하여 모음변이를 총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모음의 변이에는 한 단계 변이, 두 단계 변이, 세 단계 변이가 있는데, 한 단계 변이는 주어진 모음 위의 <표 1>에서 고저나 전후의 방향으로 한 칸만 이동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모음 ‘ㅣ’에서 ‘ㅡ’로 변이한 경우는 전설에서 중설로 한 단계 이동한 것이고, 모음 ‘ㅣ’에서 ‘ㅕ/ㅖ’로 변이한 것은 고설이 중설로 한 단계 이동한 것이다. 반면 두 단계 변이는 한 모음이 고저나 전후로 두 칸 이동한 것이다. 예를 들어, ‘ㅣ’에서 ‘ㅗ’로 변이한 경우, 전설에서 후설로 한 번, 고에서 중으로 또 한 번 이동하였기에 두 단계 변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설모음이 후설모음이 되거나 고설모음이 저설모음이 되는 변화도 두 단계 변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세 단계 변이는 모음이 고저나 전후로 세 칸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어 모음에서 전후설과 고저설이 모두 두 단계씩 이동할 방법이 없으므로 세 단계이동은 모음변화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음 ‘ㅣ’에서 ‘ㅛ’로 변이한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분류에서 한국어 모음은 7단모음 체계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3.2. 연구방법

컴퓨터 통신언어사전(조오현 외 3인 2002)은 통신언어의 의미를 사전 형식으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전에 나온 모든 어절을 분류하여 모음의 변이가 일어나는 현상을 포착하였다. 모음변이의 빈도 분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중복집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한국어 어휘가 여러 개의 변이형으로 실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복 집계를 하게 될 경우 부정확한 빈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변이가 있을 경우 모음의 변이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같이’는 ‘가취, 가튀’와 같이 두 개의 변이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음의 변이는 ‘ㅣ → ㅟ’ 하나이므로 한 번의 모음변이 사례로 측정한다. 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변이형을 가질 때에 모음변이횟수를 중복하여 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같은 형태소가 여러 번 나올 경우 한 번만 세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감동’의 변이형은 ‘감똥’으로 나타나는데, ‘감동적’의 변이형도 ‘감똥적’이다. 이때, ‘감동’이라는 동일한 형태소의 동일한 변이는 한번으로 산정하여야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부’와 ‘공부하다’가 각각 ‘경부’, ‘경부하다’로 변이한 경우 품사가 다르지만 같은 형태소의 변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세도록 한다.
3. 단어 내에서 두 번 이상의 모음변이가 발생할 경우는 모두 세어준다. 예를 들어, ‘감사’가 ‘감따’로 된 경우 앞 모음과 뒷 모음이 모두 변한 것으로 세어준다. 같은 방식으로 ‘자세히’가 ‘다쇄희’로 변이한 경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이 모두 변했으므로 3번의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세었다.
4. 동음이 반복한 경우에는 한번만 세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고’가 ‘거거’가 된 경우 앞 모음이 변한 것이 중복된 것으로 보고 한번으로 센다. ‘도리도리’가 ‘더리더리’로 변이한 경우와 같이 의성어, 의태어인 경우에 보통 같은 형태가 두 번 반복되는데 모두 한 번만 세었다.
5. 다른 단어들의 동일한 변이형이 있을 때 의미가 다르면 중복하여 센다. 예를 들어, ‘그만한’과 ‘그만’은 의미가 다르지만 변이형은 ‘고만’으로 동일하다. ‘고만’은 같은 형태이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두 번의 변이로 측정한다.
6. 모음 변이가 여러 번 진행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예를 들어, ‘고등’, ‘고당’, ‘고똥’의 경우 ‘ㅡ → ㅣ → ㅟ’의 변이가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모두 고려한다면 여러 개의 변이형을 가지는 단어의 경우 연구자의 임의에 따라 변이 관계를 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여러 번의 모음 변이가 진행된 것일 수 있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7. 축약이 발생한 경우 원형의 변이형과 중복하여 세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러면’과 ‘그러면’의 준말인 ‘그럼’은 ‘구로면’, ‘구름’이라는 변이형을 가지고 있다. 이때,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변이는 이미 원형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세지 않도록 한다.
8. 방언의 일종이거나 일상적 한국어 사용의 오류도 세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데-군다’, ‘돌아다니다-돌아댕기다’, ‘얼마나-얼매나’의 경우는 방언형이므로 통신언어에서만 나타나는 변이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9. 같은 모음으로 간주하는 ‘ㅑ’와 ‘ㅕ’의 변이는 세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네-동내’, ‘제대로-제대루’는 같은 소리를 가지는 모음으로 간주하여 변이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10. 동일한 형태소가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질 때, 동일한 ‘변이 현상’을 보이더라도 각각 세어준다. 예를 들어, ‘이쁘’는 ‘이빠’, ‘이쁘다’로 동일한 형태소이나 종결어미에 따라 모음이 달라진다. 이때, ‘이빠’, ‘이쁘다’로 변이한 경우 동일한 모음이나 원형에서 기대되는 모음의 형태가 다르므로 각각 세어준다.

4. 결과

통신언어 모음변이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변이의 정도가 적을수록 더 빈번한 변이가 나타났다. 즉, 두 단계, 혹은 세 단계 이상의 변이보다 한 단계 변이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 단계 변이 중에서도 음성학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음으로의 변이가 더욱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통신언어의 모음변이에 있어 위의 (1)에서 제시한 음성학적 제약이 정말로 작동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가설이 타당함을 강하게 증명한다. 아래에서 우리 분석의 결과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모음변이가 주로 발생하는 음절의 위치

한국어 통신언어 모음의 변이가 발생한 759단어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이 변한 경우는 293번, 두 번째 모음 이후가 변한 경우는 466번이었다. 어휘의 재인에 있어서 첫 음절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첫 음절의 변이보다는 두 번째 이후 음절의 변이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2. 모음 변이 음절

	첫 음절	두 번째 음절 이후	총 변이 빈도
모음 변이	293 (38.6%)	465 (61.4%)	759 (100%)

(2) 첫 음절의 모음변이

경부(공부), 경지사항(공지사항), 꾸까디(끝까지), 녕답(농답), 덩생(동생), 뽀스(버스), 온제(언제)

(3) 두 번째 음절 이후의 모음변이

감덩(감동), 고딩(고등), 리폴(리플), 무적건(무조건), 바부(바보), 수거(수고), 시로(싫어), 약석(약속)

4.2. 모음의 변화 경향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으로 변이한 경우는 415번, 이중모음이 단모음이 된 경우는 66번,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변이한 경우는 214번, 이중모음이 다른 이중모음으로 변한 경우는 63번이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단순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반대로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선행연구는 ‘언어의 유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되거나 이중모음이 다른 이중모음으로 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4) 단모음 → 이중모음

가웁(가입), 가튀(갈이), 감좌(감사), 남어취(나머지), 대박(대박), 따썩(자식), 만썰(만세), 아썩(아직)

(5) 이중모음 → 이중모음

과온(과연), 답변(답변), 마뇨(마녀), 안농(안녕), 저냐(전화), 완복(완벽), 합격하다(합격하다)

표 3. 모음 변이 방향

첫 모음 변이 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전체 빈도
단모음	415 (54.7%)	66 (8.7%)	481 (63.5%)
이중모음	214 (28.2%)	63 (8.3%)	277 (36.5%)
전체 빈도	629 (83.0%)	129 (17.0%)	758 (100%)

4.3. 변이 단계에 따른 빈도

<표 3>에서 볼 수 있듯, 가능한 모음변이의 비율과 실제 모음변이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논리적으로는 두 단계 변이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실제 일어나는 모음변이의 추세를 살펴보면 한 단계 변이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 단계 변이를 빈도수 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분석

7) 본 연구에서는 단모음의 변이만을 대상으로 하며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되거나,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한 사례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되는 현상에 대한 논의를 4절에서 간략히 다루고 있다.



그림 1. 가능한 모음 변이 비율과 실제 모음 변이 비율

대상은 총 415번의 단모음 변이이다. 이 중 모음이 한 단계 변이한 경우가 372회로 압도적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약 90%를 차지한다.

표 4. 한 단계 변이 모음의 유형별 빈도

전후설 이동			고저설 이동		
변이전	변이후	빈도수	변이전	변이후	빈도수
ㄱ	ㅋ	146	ㄱ	ㅈ	27
ㅡ	ㅓ	90	ㅡ	ㅣ	17
ㅋ	ㄱ	39	ㅋ	ㅓ	9
ㅓ	ㅡ	15	ㅋ	ㅈ	5
ㅡ	ㅣ	9	ㅋ/ㅈ	ㅣ	3
ㅣ	ㅡ	4	ㅈ	ㅋ	3
ㅋ	ㅋ/ㅈ	2	ㅓ	ㄱ	2
ㅋ/ㅈ	ㅋ	1	ㅣ	ㅋ/ㅈ	0
합계		306	합계		66

(6) ㄱ → ㅋ

가적(가죽), 경짜(공짜), 덩갑(동갑), 덩생(동생), 먹소리(목소리), 비경개(비공개), 앞으로(앞으로)

(7) ㅡ → ㅓ

구건(그건), 기뿌다(기쁘다), 멘뚜(멘트), 방굽(방금), 쭈레기통(쓰레기통), 요쭈(요즘), 슬뿌다(슬프다)

(8) ㅋ → ㄱ

고기(거기), 기뻐(기뻐), 모리(머리), 방뿔(방법), 온냐(언냐), 온제(언제)

(9) ㅓ → ㅡ

모드(모두), 브탁하다(부탁하다), 자즈(자주), 칭그(친구), 함브러(함부로)

(10) ㅡ → ㅣ

고딩(고등), 무신(무슨), 씨러지다(쓰러지다), 앞으로(앞으로), 초딩(초등)

(11) ㅣ → ㅡ

쓰(씨), 아죽(아직), 율뜨뫼(열심히), 조슴하다(조심하다)

- (12) ㅗ/ㅛ → ㅜ
디거(되게)
- (13) ㅓ → ㅕ
걸구(그리고), 덩말루(정말로), 새루(새로), 서루서루(서로서로), 일루(이리로), 젤루(제일로), 줌(좁)
- (14) ㅡ → ㅜ
건테(근테), 암턴(암튼), 언녕(얼른), 지검(지급), 콘서트(콘서트), 하틴(하여튼)
- (15) ㅜ → ㅡ
글음(그림), 듀그(죽어), 승질(성질), 시프스(싫어서), 은췌(언제), 음네(없네), 음통(엄청)
- (16) ㅜ → ㅓ
구랍(그랩), 그랍늬까(그렇습니까), 따벌(더블), 만어(만아), 뽀나쓰(보너스)
- (17) ㅗ/ㅛ → ㅣ
너리(노래), 디기(되게), 지발(제발)
- (18) ㅓ → ㅜ
뜨끈헌(뜨끈한), 언녕하세엽(안녕하세요), 오빠(오빠)
- (19) ㅕ → ㅓ
너모(너무), 아죤(아주)

한 단계 변이모음의 유형은 <표 4>와 같고, 각 유형의 예는 (6)-(19)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점은 <표 4>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 전후 이동의 빈도수가 고저 이동의 빈도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상위 4개의 경우가 모두 중설-후설 이동에 의한 변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어느 종류의 한 단계 변이보다도 중설-후설 간 모음 변이의 음성학적 유사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즉,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후설 모음이 한국어에서는 모두 음성학적으로 후설모음으로 분류되며 단지 평순과 원순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전설-중설보다 중설-후설이 음성학적으로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단계 변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단계 변이의 빈도와 각 유형의 예들은 각각 아래 (20)-(23)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 (20) ㅕ → ㅜ
경버하다(공부하다), 까경(까꿍), 머더(모두), 모하루(무엇하러), 아저(아주), 얼길(얼굴), 자꺼(자꾸)
- (21) ㅡ → ㅓ
고돔(그림), 고만(그만), 데이포(데이트), 방곰(방금), 이뽀다(이쁘다), 코다(크다)
- (22) ㅓ → ㅡ
굴그(글고), 굴애드(그래도), 덩말르(정말로), 뉘따르(진

짜로), 밥흐(바보), 줌(좁), 하드(하도)

- (23) ㅜ → ㅕ
아부딩(아버지), 이룬(이런), 중말(정말), 허복지(허벅지)

표 5. 두 단계 변이 모음의 유형별 빈도

전후/고저가 한번씩 적용			고저/전후로 극단적 변이		
변이전	변이후	빈도수	변이전	변이후	빈도수
ㅕ	ㅜ	10	ㅣ	ㅕ	1
ㅡ	ㅓ	8	ㅡ	ㅓ	1
ㅓ	ㅡ	6	ㅓ	ㅡ	1
ㅜ	ㅕ	5	ㅕ	ㅣ	0
ㅣ	ㅜ	1	ㅗ/ㅛ	ㅓ	0
ㅗ/ㅛ	ㅓ	1	ㅓ	ㅗ/ㅛ	0
ㅓ	ㅓ	1			
ㅓ	ㅗ/ㅛ	1			
ㅡ	ㅗ/ㅛ	0			
ㅗ/ㅛ	ㅡ	0			
ㅜ	ㅣ	0			
합계		34	합계		3

우선 두 단계 변이의 빈도가 한 단계 변이 다음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전-후와 고-저 변이가 각각 한 칸씩 이동한 것이 고-저나 전-후로 두 칸씩 이동하는 경우보다 빈도가 높다. 또한, 중-후설 간의 두 단계이동이 다른 이동보다 특히 빈도가 높다.

4.4 세 단계 변이모음

세 단계 이동한 모음 변이의 빈도는 아래 <표 6>에서 볼 수 있듯 그 빈도수가 가장 낮다. 이는 원래 단어와 변이형 사이의 음성학적 유사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표 6. 세 단계 변이 모음의 유형별 빈도

변이전	변이후	빈도수
ㅓ	ㅕ	3
ㅣ	ㅓ	1
ㅓ	ㅣ	1
ㅓ	ㅓ	1
ㅣ	ㅓ	0
ㅕ	ㅗ/ㅛ	0
ㅕ	ㅓ	0
ㅗ/ㅛ	ㅕ	0

5. 논의

앞절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통신언어의 모음변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첫 음절의 모음보다 두 번째 음절 이후의 모음 변이가 활발하다. 이것은 첫음절이 단어의 재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하려는 경향보다 단모음이 이중모음화하려는 경향이 더 활발하다. 경제성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되는 경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나(전병용 2002)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또한,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변하더라도 둘 사이의 음성학적 유사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원래 단어의 단모음은 대부분 변이형의 이중모음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모음 변이의 세 가지 종류 중 한 단계 변이가 90%를 차지했다. 그 중 후설모음 내의 원평순이동이 76.9%를 차지하였다. 즉, 같은 후설모음이면서 원평순 조건만 다른 ‘ㄱ - ㄱ’와 ‘ㅡ - ㅜ’ 변이가 가장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단모음 각각의 전체 빈도와 상관없이 각 모음은 한 단계 변이를 가장 활발하게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혀의 위치는 그대로이며 입술의 모양만 평순, 원순으로 변이하는 경우가 가장 활발하게 변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통신언어의 변이형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음성학적 제약을 지키며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6.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은 통신언어의 수신자가 처음 접하는 통신언어 변이형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전혀 어려움 없이 원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였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변이형이 음성학적 제약을 따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컴퓨터 통신언어사전에 나오는 다양한 통신언어를 바탕으로 모음변이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성학적 유사성이 높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변이형의 이해를 쉽게 하는 요인에는 음성학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맥에 대한 고려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인데, 각각의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통신언어의 처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참고문헌

- [1] Jeon, B. Y. (2002). A study of phonological features on the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 with a special focus on the chatting languag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21, 251-274.
(전병용 (2002). 통신 언어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 -대화방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1호, 251-274.)
- [2] Jo, O. H. & Kim, Y. K. & Park, D. G (2002). *The computer communication language dictionary*, Seoul:yukrak.
(조오현, 김용경, 박동근 (2002). 컴퓨터 통신언어 사전. 역락)
- [3] Kwon, K. K. (2001). On systematic aspects of vowel change in the contemporary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0, 29-48.
(권경근 (2001). 현대국어에서의 모음 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 젊은 세대의 말을 중심으로. 언어학 30호, 29-48.)
- [4] Lee, J. H. (2010). A study of phonological features and orthography in computer mediated language. *Linguistic research*. Vol. 27, No. 1, 1-18.
(이주희 (2010). “통신언어의 표기와 음운적 특성”, 언어연구 제27권 1호, 1-18.)
- [5] Park, C. J. (2006). A phonological study of PC communication language noun. *Korea Language Education*. 119, 457-486.
(박철주 (2006). “PC 통신언어 명사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교육 119호, 457-486.)
- [6] Shin, J. Y. (2010). Phoneme and syllable frequencies based on the analysis of entries in the Korean dictionar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5, 94-106.
(신지영 (2010). 한국어 사전 표제어 발음의 음소 및 음절 빈도. 언어청각장애연구 15호, 94-106.)
- [7] Shin, J. Y. (2012). *Sound of the Korean*. Seoul: Jisikkwa kyoyang
(신지영 (2012).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 교양)
- [8] Yoon, O. K. (2000). The generation gap in information age: can cyberspace be a place for intergenerational understand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1 No. 2 55-75.
(윤옥경 (2000). 사이버시대의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2호, 51-75.)
- **지윤주 (Ji, Yunjoo)**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Email: jshelper2013yj@gmail.com
관심분야: 심리언어학, 통사론, 의미론
현재 언어인지과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김일규(Kim, Ilkyu)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영어과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Email: 81ilkyu@gmail.com
관심분야: 심리언어학, 통사론, 의미화용론
현재 강원대학교 영어과 교수